

사회

음주운전 사상자 年 4천명

광주·전남 2008년 110명 사망... 비용손실 650억

광주·전남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로 매년 4천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비용손실은 6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5명 중 1명 가량이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지역별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광주·전남에서는 총 2천317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110명이 숨지고 4천238명이 다쳤다.

이는 전체 발생 교통사고(1만8천703건)의 12.4%, 사망자(623명)의 17.7%, 부상자(3만1천610명)의 13.4% 수준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

사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전남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89명으로, 전체 교통사고(483명)의 18.4%에 달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2명 가량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 셈이다.

또 광주·전남은 2008년 음주 교통사고에 따른 손실액이 각각 175억1천500만원, 474억6천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해 동안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광주·전남에서만 650억원 가량의 돈이 공중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 손실액은 음주 교통사고에 따른 의료비와 장례비를 비롯,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휴업으로 인한 시

간비용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광주·전남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평균 손실액이 각각 2천65만원, 3천231만원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전국 음주 교통사고에 따른 건당 평균 손실액은 2천551만원이었다.

시·도별로는 전북의 음주 교통사고에 따른 건당 평균 손실액이 4천23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3천522만원), 경남(3천503만원), 경기(2천573만원), 강원(2천572만원) 등의 순이었다.

또 음주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충남 19.2%를 비롯, 경기(15.9%), 경북(14.8%), 울산(14.7%), 강원(14.3%), 등이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녹색생활 글로리’ 발대 17일 광주역 광장에서 코레일 광주본부 주최로 ‘철도를 열망하는 녹색생활 글로리(GLORY) 발대식’이 열렸다. 코레일 광주본부는 녹색체험열차 운행과 선로 주변 폐부지 나무심기 운동 등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 9개 대학 선정

전남대 59억·조선대 49억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도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광주·전남지역 대학이 지난해 7곳에서 9곳으로 늘었다.

특히 광주대와 동신대가 올해 처음으로 지원 대학에 선정됐으며, 광주·전남지역 대학에 지원되는 관련 예산은 291억으로 지난해에 비해 43억원이 늘었다.

전남대는 지난해보다 1천400만원

이 증가한 59억7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전남대는 2년 연속 지원대상에 선정된 대학 중 유일하게 지원액이 증가했으며, 나머지 대학들은 감소했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대상 대학에 선정된 광주대와 동신대는 각각 29억5천900만원, 29억1천500만원을 지원받는다.

호남대는 학생들의 학습력은 물론

■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

전남대	59억7천400만원
조선대	49억2천600만원
순천대	32억7천600만원
목포대	32억5천200만원
호남대	30억3천만원
광주대	29억5천900만원
동신대	29억1천500만원
목포해양대	18억6천900만원
광주교육대	9억원

비교과적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7 Star Award’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아 호남권대학 중 유일하게 교육역량 강화사업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슬픔과 그리움으로...

법정스님 49재 초재 지내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17일 오전 서울 성북동 길상사 극락전에서 봉행된 법정스님의 49재 초재(初齋)는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 목탁과 요령 소리와 함께 영혼을 깨끗이 목욕시키는 관욕(灌浴) 절차로 시작한 초재는 천수경·반야심경을 독송하고, 법정스님이 생전에 했던 육성법문을 듣는 시간과 법정스님의 추모사, 합창단의 음성공양, 영혼에 음식을 공양하는 영반(靈飯), 염불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초재에는 길상사 주지 덕현스님을 비롯한 법정스님의 상좌스님들과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스님, 송광사 주지 영조스님 등 수백 명의 추모객들이 참석해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초재가 진행된 극락전에는 법정스님의 영정과 ‘비구법정(比丘法頂)’이라고 단출하게 적힌 지방 아래 여러 과일과 음식들로 제사상이 차려졌고, 그 옆으로 법정스님의 상좌스님들이 자리했다.

추모객들 일부는 극락전에서 초재와 예불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 일부는 추모단이 모셔진 설법전(說法殿)에서 영상을 보며 법정스님을 기렸고, 대부분은 극락전 앞마당에 자리를 깔고 앉거나 서서 예불을 드렸다.

한편, 길상사 측은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법정스님의 추모 법회는 취소하는 대신 2일부터 6일까지는 일정대로 진행하고 마지막 49재는 내달 28일 송광사에서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내 모든 책 더 이상 출간 말라”

법정스님 유언장 공개

(사)맑고향기롭게는 17일 오후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지난 달 24일 작성한 법정스님의 유언장 전문을 공개했다. 유언장은 출판물 관련 내용이 있는 ‘남기는 말’과 제자들에게 주는 ‘상좌를 보아라’ 등 2장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유언장 전문.

◇남기는 말

1.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탓으로 제가 저지른 허물은 앞으로 계속 참회하겠습니다.

2.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면 모두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에 주어 맑고 향기로운 사회

를 구현하는 활동에 사용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동안 풀어놓은 말뭉치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기로 하니, 부디 내 이름을 모든 출판물에서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주시고,

3.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상좌를 보아라

(1~4 중략) 5. 내가 떠나는 경우 내 이름으로 번거롭고 부질없는 검은 의식을 행하지 말고, 사리를 찾으려고 하지도 말고, 관공수의를 마련하지 말고, 편리하고 이웃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지체없이 평소의 승복을 입은 상태로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 2월 24일 법정 법재철

초·중·고 교장 절반 공모제 선발

인사담당 장학관 재산등록

교장이나 인사담당 장학관 재산등록제를 도입하고, 교대·사대 교직과정이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반부패 청렴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장학관 등 전문직과 관련해서는 선발심사 때 외부인사를 50%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청 내 주요 보직을 공모하며 장학관(사)-교장(감) 전직 요건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초·중·고 교장의 절반을 공모제를 통해 선발한다.

교과부는 현재 5% 정도로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전국 학교의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필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40분** **해질녘 18시 42분** **달돋이 09시 23분** **달질 21시 08분**

출근길 우산 준비

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개겠다.

광주	비온후 맑	4/8℃
목포	비온후 맑	4/8℃
여수	비온후 맑	5/10℃
완도	비온후 맑	4/9℃
구례	비온후 맑	3/10℃
예남	비온후 맑	3/10℃
장흥	비온후 맑	3/10℃
고흥	비온후 맑	4/11℃
순천	비/눈 오다 맑	3/10℃
영광	비 온 후 맑	3/7℃
영도	비온후 맑	3/9℃
전주	비온후 맑	2/7℃
남원	비/눈 오다 맑	-1/8℃
홍산도	비온후 맑	4/5℃

〈오전〉 바다 **중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1.0~2.0m	낮음	관심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1.5~2.5m	낮음	관심	낮음

〈오후〉 바다 **중랑**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목포	03:37	08:45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목포	15:44	20:56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여수	10:22	04:1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여수	22:45	16:23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날씨						
최저/최고	0/15	3/15	3/9	4/10	3/12	3/12

식목일 전후 남도는 ‘벚꽃세상’

여수 29일·광주 30일 첫 꽃망울 ‘뜯’



이달 말부터 하얀 벚꽃이 첫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보인다. 식목일(4월 5일) 전후로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남도(南道) 전역이 장관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오는 30일 벚꽃이 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평년보

다 4일 빠르고 지난해보다는 8일 늦은 것이다. 여수지역은 평년보다는 8일 빠르고 지난해보다는 5일 늦은 29일께 벚꽃이 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벚꽃 개화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최근 기온과 강수량(2월 1일~3월 15일)을 토대로 이 같은 결과를 내었다.

벚꽃 개화 시점은 전국 기상관서의 관측표준목인 왕벚나무를 기준으로, 한 그루에서 3송이 이상이 완전히 피었을 때를 가리킨다. 개화 후 만개까지 통상 1주일 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는 다음달 6일께, 여수는 5일께 벚꽃이 만발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예측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데이터를 반영, 매년 벚꽃 개화 예상 시기를 2차례 발표한다. 기상청은 지난 4월에 1차 발표를 한 바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저는 ‘인사담당 장학관’이 되고 싶습니다.”

합리적인 구조를 확립 및 연약지반 보강공법의 신개념!!

1. **합리적인 구조를 확립**

- 합리적인 구조를 확립
- 합리적인 구조를 확립
- 합리적인 구조를 확립

2. **합리적인 구조를 확립**

- 합리적인 구조를 확립
- 합리적인 구조를 확립
- 합리적인 구조를 확립

3. **합리적인 구조를 확립**

- 합리적인 구조를 확립
- 합리적인 구조를 확립
- 합리적인 구조를 확립

대한건설공사(주)

이태리 가구 50%▶

오늘부터 이태리 가구 특수할인 대매점

2년만의 빅세일 3월 29일 까지

CASATO

이태리 클래식 남자슈즈 파사도 호남총판 4월 5일 오픈

100% Made in Italy